■ 민족문화연구 제86호(2020.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31-272.
http://doi.org/10.17948/kcs.2020..86.231

『오옥기담(五玉奇談)』의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규정과 20세기 초 애정전기소설사의 향방

권도경(權都京)*

목 차

1. 문제설정의 방향
2. 『오옥기담』의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보편성
3. 『오옥기담』의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전변 국면과 통시사적 의미
4. 『오옥기담』의 20세기 시대사적 의의
5.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선행연구사에서 18·9세기까지 지속된 역사적 양식으로 논의되어온 애정전기소설이 20세기 초엽의 시대사적 변화에 조응하는 가운데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서사적 전변과 시대의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오옥기담』 소재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가 단순한 복고적 주제와 구투의 문체로 된 신소설 혹은 다섯 편의 계몽적 단편국문고소설을 묶은 편집본이 아니라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적 전통 속에서 개화기라는 20세기 초엽의 국가적 이슈에 서사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 애정전기소설사의 주체적인 전변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애정전기소설사가 18·9세기 이후에도 시대적 변화에 대

* 우석대 교양대학 조교수.

한 허구적인 응전이라는 문학적 소명에 부응하고자 하는 흐름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실현되었다. 첫 번째는『오옥기담』소재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의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규정이다.『오옥기담』소재 다섯 편 텍스트가 애정전기소설의 보편적인 양식에 부합하는 작품이면서도 이전 시기 애정전기소설 텍스트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성을 구현한 독창적인 작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오옥기담』소재 다섯 편 텍스트의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특수성이 지니는 애정전기소설 통시사적인 의미를 규명하였다.

두 번째는『오옥기담』소재 다섯 편 텍스트에서 도출해낸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미학의 전변 국면이 지니는 시대사적 의의이다.『오옥기담』소재 다섯 편의 텍스트들에서 도출한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전변 국면이 20세기 초엽의 변화된 시대의식 및 환경 세계와의 조응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즉,『오옥기담』이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라는 다섯 편의 텍스트를 특별히 선택하여 편집한 데에는 편집자의 특별한 편집의도가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오옥기담』편집자의 편집의도를 20세기 초엽의 시대의식 및 시대배경 속에서 규명해낼 수 있었다.

주제어: 20세기 초 애정전기소설, 오옥기담, 금잠가연, 취란방기, 변씨열행, 선분기담, 청루의녀.

1. 문제설정의 방향

기실, 애정전기소설사에 관한 연구는 18·9세기로 확장된 전변사를 구축했던 2000년대[1] 이후로 새로운 거시적인 방향성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1) 18·9세기를 애정전기소설사의 해체 및 재자가인소설사로의 전환기로 보는 시각은 현재까지 단 두 명연구자의 단 네 편의 논문에 의해 제기된 비주류 학설이며, 그나마도 단 세 편의 텍스트를 제외하고는 기존 연구사에서 18·9세기 애정전기소설로 분류한 텍스트들을 포괄하지도 못하였다. 주장자는 김정숙과 한의숭이다. 전자의 김정숙은「『洛東野言』所載 소설에 대한 일고찰: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의 관점에서」,『고소설연구』제17집, 한국고소설학회, 2004a;「〈白雲仙翫春結緣錄〉의 통속성 연구: 재자가인소설과 관련하여」,『어문논집』제49호, 민족어문학회, 2004b;「朝鮮後期 才子佳人小說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에서, 후자의 한의숭은「朝鮮後期 才子佳人小說 관련 논의의 비판적 검토와 전개 양상에 대한 試論」,『인문과학연구』제38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3에서 상기 주장을 편 바 있다. 그러나 김정숙이 상기 두 편의 논문들에서 애정전기소설 양식을 해체하고 재자가인소설로 전환된 18·9세기 작품으로 분류한 〈구운몽〉·〈백운선완춘결연록〉

것으로 보인다. 그전까지 나말여초에서 17세기에 이르는 시기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왔던 애정전기소설사는 2000년대에 집중적으로 축적된 연구 성과를 통해 18·9세기에도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즉, 애정전기소설사가 17세기 이래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18·9세기에도 변화된 시대의식에 부응하여 양식적인 변화·발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는 것[2]이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애정전기소설 양식의 전범처럼 여겨져 왔던 『금오신화』 소재 〈이생규장전〉·〈만복사저포기〉·〈취유부벽정기〉는 나말여초에서 16·7세기를 거쳐 18·9세기로 이행되는 지속적 흐름의 한 도정에 위치한 작품일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서 18·9세기가 애정전기소설사의 새로운 전변기로 포함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새로운 작품의 발굴과 양식적 특징 규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그저 한문단편애정소설에 불

·〈빙허자방화록〉·〈홍백화전〉·〈낙동야언〉·〈동선기〉·〈왕경룡전〉 중에서 18·9세기 텍스트는 〈백운선완춘결연록〉·〈빙허자방화록〉·〈낙동야언〉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17세기 텍스트이며, 그나마 〈구운몽〉·〈홍백화전〉은 애정전기소설로 분류된 적이 없는 텍스트이다. 게다가 〈백운선완춘결연록〉·〈빙허자방화록〉·〈낙동야언〉은 권도경, 「조선후기 애정전기소설사의 변심 주지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2a; 「「빙허자방화록(憑虛子訪花錄)」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36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d; 「〈憑虛子訪花錄〉의 변심 테마와 전기소설사적 위상」, 『고소설연구』 제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b; 「〈白雲仙翫春結緣錄〉의 작품세계와 변심 테마의 전기소설사적 맥락」, 『고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a; 정병호, 「〈洛東野言〉의 類型的 性格: 人物形象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제21집, 대동한문학회, 2004의 총 6편 논문에서 조선후기 애정전기소설로 분류된 바 있다.

2) 윤재민, 「조선후기 전기소설의 향방」, 『민족문학사연구』 제15호, 민족문학사학회, 1999; 정길수, 「折花奇談 硏究 : 19세기 愛情傳奇 傳統의 繼承과 變容」,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권도경, 「〈정생전〉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9; 「〈정생전〉의 서사구조적 특징과 18세기 전기소설적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제18호, 민족문학사학회, 2001b; 앞의 글, 2002a; 「〈포의교집〉의 애정갈등과 비극적 결말의 현실적 의미」, 『국어국문학』 제132호, 국어국문학회, 2002c; 앞의 글, 2002d; 「김기의 문학세계와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2e; 앞의 글, 2003a; 앞의 글, 2003b, 113-164면; 『조선후기 전기소설의 전변과 새로운 시각』, 보고사, 2004; 「〈홍랑전〉의 구성적 특징과 소설사적 의의」, 『민족문화논총』 제30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5; 전선희, 「朝鮮後期 愛情傳奇小說의 人物變貌樣相 硏究」,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7; 신상필, 「傳奇小說의 일상성과 내면응시를 통한 조선후기적 변주」, 『대동한문학』 제35집, 대동한문학회, 2011; 유해인, 「절화기담·포의교집의 간통 형상과 서술시각」,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7; 신경남, 「조선후기 애정소설의 생활사적 연구」, 가천대 박사학위논문, 2017.

과하다고 치부되거나 혹은 텍스트 소개에만 그쳤던 18·9세기 작품들의 양식적 특징이 애정전기소설 범주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7세기에서 이어지는 18·9세기 애정전기소설사의 전변사가 밝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존에 축적된 연구사에서 한문단편의 애정세태소설로만 분류되어 왔던 18세기 〈심생전(沈生傳)〉을 적극적으로 애정전기소설의 양식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단편적인 텍스트 해제에만 그쳐왔던 18세기 〈백운선완춘결연록(白雲仙翫春結緣錄)〉·〈빙허자방화록(憑虛子訪花錄)〉·〈정생전(丁生傳)〉과 19세기 〈포의교집(布衣交集)〉·〈절화기담(折花奇談)〉의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특징과 의의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거나, 아예 포괄적으로 18·9세기 애정전기소설사의 통시적인 전변단계와 전기소설사적 의미를 규명한 일련의 연구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야만 할 애정전기소설사에 관한 연구의 포인트는 최근까지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왔던 18·9세기 애정전기소설의 전변단계 직후의 지점이다. 18·9세기 애정전기소설사의 양식적 지속과 발전 양상이 보편적인 지식이 되어버린 지금, 새로운 연구의 문제설정을 위한 기점은 바로 직전의 18·9세기 애정전기소설사 정립을 위해 던졌던 질문과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18·9세기 이후로 애정전기소설사는 단절되었는가 아니면 20세기 신소설 시대에도 여전히 환경세계에 발맞추어 유의미한 변화를 모색했느냐의 문제가 된다. 18·9세기 애정전기소설의 이행과 변화가 애정전기소설사의 기지의 사실로 보편화 된 시점에서 이제는 18·9세기와 연속선상에 있는 20세기 애정전기소설사의 향방이 새롭게 규명될 필요가 있는 아젠다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가 주목한 연구대상은 바로 20세기 초엽에 나온 국문단편소설집 『오옥기담』이다. 1906년 4월 18일에 필사된 『오옥기담』은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의 국문단편소설 다섯 편을 묶은 편집책으로, 사실 단편애정전기소설집이다.[3] 원래,

3) 이 부분의 기술 내용에 대해 혹자는 "전체적으로 논문 구성에 있어서 작품에 대한 분석이 없이 『오옥기담(五玉奇談)』은 애정전기소설이라고 단정한 후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즉, 『오

애정전기소설은 나말여초부터 한문의 문인지식인에 의해 창작된 단편의 한문소설로 출발했다. 하지만 17세기부터 애정전기소설의 중편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한글번역본 및 한글창작본이 탄생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운영전〉·〈주생전〉(『묵재일기(默齋日記)』본)에는 한글번역본이 병존한다. 1900년대에는 17세기 〈왕경룡전〉이 구활자본소설인 〈청루지열녀〉라는 독자적인 제목의 국문본으로 출판되었는데, 이 〈청루지열녀〉의 원본인 〈왕경룡전〉은 당나라의 백행간(白行簡)의 애정전기소설인 〈이왜전(李娃傳)〉을 백화소설화 한 명나라 풍몽룡(馮夢龍)의 『경세통언(警世通言)』에 실린 〈옥당춘낙난봉부(玉堂春落難逢夫)〉을 번안한 것이다. 조선이 중국 중심의 중화정통주의 질서 속에 확고히 위치해 있던 17세기에는 〈옥당춘낙난봉부〉의 번안이 〈왕경룡전〉과 같은 한문본으로 이루어졌다면, 중화정통주의가 해체되고 조선정통주의 질서가 새롭게 모색되어 나가던 1900년대에는 역시 중국 원작인 〈두십랑노침백보상(杜十娘怒沈百寶箱)〉의 번안이 〈청루의녀〉(1906년 『대한매일신보』본 〈청루의녀〉와 『오옥기담』본 〈청루의녀〉)와 같은 국문본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오옥기담』 같은 1900년대 국문본 애정전기소설의 탄생에는 이러한 국문전용을 통한 조선정통주의 구축이 시도되는 흐름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었다[4]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오옥기담』은 비록 애정전기소설 양식에 속하는 텍스트가 일부에 국한되거나 전문이 전하지 않긴 하지만 나말여초의 『삼국유사』·『수이전』으로 시작되어 15·6세기 『금오신화』·『기재기이』로 완성을 보았다가 17세기 『화몽집(花夢集)』으로 이행된 단편 애정전기소설집의 계보를 계승했다. 계층적 애

옥기담』이라는 작품집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해석을 배제하고 단지 애정전기소설의 보편적 특성과 비교하면서 논문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라고 언급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특정 텍스트의 양식적 특징에 대한 분석은 해당 텍스트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 이후 도출된 양식적 범주 규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연히 『오옥기담』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이후에 해당 텍스트가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적 범주에 귀속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애정전기소설의 보편적 특징과 비교하면서 논문을 구성한 것이다. 텍스트의 양식적 특징에 대한 고려 없는 "작품에 대한 분석"을 별도의 챕터로 구성한다 하더라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및 의미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둔다.

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챕터 4-1)에 관련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정갈등과 도시적 현실성, 중편화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개척한 18·9세기 애정전기소설사에 단편애정전기소설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오옥기담』은 단편애정전기소설의 편집책이란 존재 자체에서부터 18·9세기와 차별화 되는 애정전기소설사의 전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오옥기담』이 굳이 18·9세기에는 없었던 단편집이란 카드를 선택한 배경에는 나말여초부터 17세기까지 이어져온 단편애정소설편집본의 전통 속에서 18·9세기 애정전기소설사에 대한 상대적 차별성을 구축하겠다는 의도성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로 이 지점에서 『오옥기담』이 18·9세기와는 다른 서사적 차별성을 나말여초에서 17세기까지 존재했던 애정전기소설소설집 중 어떤 편집본과의 연계성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찾고자 했으며 그것이 지니는 애정전기소설사적 의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만 할 필요성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오옥기담』에 관해서는 해제론 세 편과 본격 작품론 한 편이 존재한다. 전자와 후자는 모두 고전문학계에서 제출된 선행연구들이다. 근현대문학계에서는 작품명만 언급할 뿐 개별 해제론조차 이루어진 바 있다. 전자에서는 『오옥기담』의 소재·문장에 근대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신소설로 보기에는 전반적인 문장이나 구성이 고대적[5]이며 우연성·불교성·도선성·마력성,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의 대비성, 중국 육조단편(六朝斷篇) 및 한국 〈숙영낭자전〉·〈박씨부인전〉과의 유사성[6]을 지닌 작품이란 사실이 규명되었으며, 후자에서는 애국계몽기의 계몽적·기담적 신의성을 추구한 작품일 가능성이 제시[7]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오옥기담』의 단편적인 특징과 주제 지향성의 한 성향이 제시되는 성과가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들이 도출해낸 『오옥기담』의 특징들이 하나의 고소설적 양식의 의미망 속으로 유의미하게 수렴되지 못하고 상호모

5) 소재영, 「오옥기담(五玉奇談)」, 『고소설통론』, 이우출판사, 1980; 「미발표소설삼제(未發表小說三題)」, 『국어국문학』 제55-57호, 국어국문학회, 1972.
6) 김기동, 「오옥기담(五玉奇談)」,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21권, 아세아문화사, 1983.
7) 허순우, 「애국계몽기 국문단편 고전소설집 『오옥기담(五玉奇談)』의 특징과 의의」, 『한국민족문화』 제58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순적으로 열거됨으로써 『오옥기담』이 구현하고 있는 문학적 가치를 드러내기는커녕 도리어 훼손시키고 있다는데 있다. 예컨대, 『오옥기담』의 소재・문장・구성・주제에서 각각 확인된다고 하는 근대성과 고대성, 우연성・불교성・도선성・마력성・기담성과 현실성,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신의성・계몽성, 중국 육조단편과의 유사성 및 한국 〈숙영낭자전〉・〈박씨부인전〉과의 유사성의 대응쌍은 상호모순적인 것이다. 물론 특정 작품에서 소재・문장・구성・주제의 대립쌍이 확인될 수는 있다. 다만, 해당의 대립쌍은 상호 모순적이어서는 안되며, 해당 작품이 소속된 문학 장르・양식의 유형적・미적 특질과 통시사적・시대사적 의미 속에 수렴되어 일관된 의미망을 구성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옥기담』을 범박한 고소설의 범주 속에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고소설의 특정한 양식 범주 속에 귀속시키는 작업이 선결되어야만 한다. 즉, 『오옥기담』이 지니는 고소설 양식적 귀속 및 양식사적 의의에 대한 선제적 작업의 필요성이 된다. 선행의 해제론・작품론에서 지적되었던 대로 『오옥기담』이 신소설이 아니라 고소설적 문장・구성・스타일・서사・주제로 이루어진 작품이라면, 이러한 문장・구성・스타일・서사・주제는 기왕에 지적된 『오옥기담』의 단편적인 주제적 특징들이 『오옥기담』의 편집 시기인 1906년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고소설의 어떤 양식에 귀속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오옥기담』이 구현해내고 있는 특정 고소설 양식의적 차별성과 통시사적 의미,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시대사적 의의를 규명해 낼 때만이 『오옥기담』의 문장・구성・스타일・서사・주제적 특징이 지니는 가치가 명확하게 해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옥기담』이 귀속된 특정 고소설 양식에 대한 전제 작업이 선결된다면, 『오옥기담』의 선행연구들이 노정하고 있는 연구결과의 상호모순성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예컨대, 『오옥기담』에서 나타나는 근대성과 고대성, 우연성・불교성・도선성・마력성・기담성과 현실성,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신의주의・계몽주의, 중국 육조단편과의 유사성 및 한국 〈숙영낭자전〉・〈박씨부인전〉과의 유사성 등의 대응쌍들은 상호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오옥기담』이 귀

속된 특정 고소설 양식의 미적 특질을 보편적으로 구현한 것이거나 혹은 해당 양식의 보편적 미의식을 『오옥기담』이 특수하게 변형시킨 전변의 결과물인 것으로 의미화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오옥기담』이 특정 고소설 양식의 통시적 전변사 속에서 당대의 변화된 시대의식과 환경세계에 부응하기 위해 각각 계승 및 변형시켜내고 있는 양식적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일관되게 설명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오옥기담』의 선행연구사가 노정하고 있는 분석 결과물들의 상호모순성을 『오옥기담』에 대한 애정전기소설적 양식 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선행연구사가 『오옥기담』에서 확인된다고 본 근대성과 고대성, 우연성・불교성・도선성・마력성・기담성과 현실성,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신의주의・계몽주의의 상호모순적 대응쌍들은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적 보편성과 특수성 속에서 해명될 수 있으며, 오히려 일견 상호모순적으로 보이는 근대성과 고대성, 우연성・불교성・도선성・마력성・기담성과 현실성,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신의주의・계몽주의, 중국 육조단편과의 유사성 및 한국 〈숙영낭자전〉・〈박씨부인전〉과의 유사성 등의 대응쌍들이야말로 애정전기소설의 통시적 전변사 속에서 『오옥기담』이 지니는 차별적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소설로서의 고대성・우연성을 기저에 깐 가운데, 『오옥기담』의 불교성・도선성・신의성은 15세기 『금오신화』소재 애정전기소설인 〈이생규장전〉・〈만복사저포기〉・〈취유부벽정기〉에서 완성된 애정전기소설 양식의 보편적인 유・불・도 공존성과 관련될 수 있고, 마력성・기담성은 나말여초의 〈최치원〉・〈김현감호〉・〈조신〉에서부터 15세기 〈이생규장전〉・〈만복사저포기〉・〈취유부벽정기〉를 거쳐 17세기 〈동선기〉와 18세기 〈정생전〉까지 지속된 애정전기소설 양식 특유의 보편적 기이성과 연관될 수 있다. 동시에 이상주의・신의주의는 역시 15세기 금오신화』소재 애정전기소설인 〈이생규장전〉・〈만복사저포기〉・〈취유부벽정기〉에서 확립되었던 전형적 보편성 속에 있는 것이고, 계몽주의는 나말여초부터 18・9세기까지의 애정전기소설 텍스트들에 부기되어 있는 후기・평비들에서 확인 되는 바 불교적・유교적

교조주의의 보편적 맥락 내부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현실주의는 나말여초의 〈김현감호〉·〈조신〉 등에서 구현되었으나 15세기의 『금오신화』 전성시대에는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17세기 〈상사동기〉·〈주생전〉에서 부활한 뒤 18·9세기 〈심생전〉·〈정생전〉·〈빙허자방화록〉·〈백운선완춘결연록〉·〈절화기담〉·〈포의교집〉에서 대거 확대된 변심(變心) 테마의 특수한 전변 맥락[8]과 관련되어 있으며, 현실성은 17세기 〈최척전〉·〈위경천전〉·〈상사동기〉·〈주생전〉에서 확립되어 18세기 〈심생전〉·〈빙허자방화록〉·〈백운선완춘결연록〉·〈절화기담〉·〈포의교집〉에서 주류를 이루게 된 애정전기소설사의 현실지향적인 특수한 전변 방향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 육조단편과의 유사성 및 한국 〈숙영낭자전〉·〈박씨부인전〉과의 유사성이라는 상호모순적 대응쌍 중에서 전자는 중국 애정전기소설을 오마주(hommage) 해온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적인 보편성 속에서 이해가능하다. 예컨대, 『오옥기담』과 육조전기와 유사성은 나말여초의 〈최치원〉·〈김현감호〉와 당대(唐代) 애정전기소설 〈유선굴〉·〈신도징〉, 17세기 〈주생전〉과 당대 애정전기소설 〈곽소옥전〉, 18세기 〈심생전〉·〈정생전〉·〈빙허자방화록〉·〈백운선완춘결연록〉과 당대 애정전기소설 〈앵앵전〉·〈두목〉, 19세기 〈절화기담〉과 〈앵앵전〉의 보편적인 영향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오옥기담』과 한국 〈숙영낭자전〉·〈박씨부인전〉과의 유사성은 비(非) 애정전기소설 텍스트의 대중적 흥행요소를 수용함으로써 통시적 애정전기소설사의 매시기마다 전변의 계기를 마련해온 애정전기소설의 특수한 전변 단계와 관련하여 이해가능하다. 예컨대, 16세기 『기재기이』 소재 〈하생기우전〉은 16세기에 이미 성립되어 있던 영웅소설의 욕망성취 및 해피엔딩 미학을 수용함으로써 나말여초에서 15세기까지 일관되어온 애정전기소설의 욕망실패

8) 권도경, 앞의 글, 1999; 「16세기 『기재기이』의 전기소설사적 의의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a; 「〈동선기〉 연구」, 『이화어문학논집』 제18집, 이화어문학회, 2000b; 「17세기 애정류 전기소설에 나타난 정절 관념의 강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a; 앞의 글, 2001b; 앞의 글, 2002a; 「〈안생전〉의 창작 경위와 이본의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b; 앞의 글, 2002c; 앞의 글, 2002d; 앞의 글, 2002e; 앞의 글, 2003a; 앞의 글, 2003b; 앞의 글, 2005; 앞의 책, 2014.

및 새드엔딩 미학을 전환시켰던 바, 이러한 전변의 특수성은 17세기 〈최척전〉·〈동선기〉로 계승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오옥기담』에 내재해 있다고 하는 고대성과 근대성의 상호모순성 역시 애정전기소설 양식의 통시적 전개사 속에서 확인되는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일관되게 해결될 수 있다. 『오옥기담』의 고대성은 『오옥기담』의 귀속 양식인 애정전기소설이 근현대소설이 아니라 고소설이라는 장르의 보편성에 기반 해 있다. 고소설은 현대적인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던 1960년대까지도 육전소설이란 이름으로 대중적인 향유를 지속하였던 바, 고소설의 고대성은 『오옥기담』의 개화기시대는 물론 현대 산업화시대에도 소위 현대성과 이중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부터 한국에서 본격화된 방송매체는 물론 1990년대부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대중화 된 디지털매체가 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게임·웹소설·웹툰 등의 방송·디지털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는 시대에도 고소설의 고대성은 방송·디지털콘텐츠의 근·현대성과 평행선상에서 지속되고 있다. 근대와 현대란 근대성과 현대성으로 새롭게 시작되거나 혹은 전유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매체만 전근대적인 구연·필사·목판인쇄·구활자인쇄에서 근·현대적인 방송·디지털로 전환되었을 뿐 근·현대에도 여전히 고소설의 고대성은 방송·디지털매체를 통해 근·현대콘텐츠 속에 구현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현대의 무수한 사극드라마 혹은 사극영화는 아예 고대적 배경·사건·인물·소재·주제로 일관되어있다. 비(非) 사극드라마·영화라 할지라도 현대적 배경·사건·인물·소재 속에 고대적 주제가 형상화 되어 있거나, 현대적 배경·사건·인물·소재마저도 고소설의 고대적 배경·사건·인물·소재를 현대적 매체를 통해 재매개화 한 고전서사원형의 현대적 치환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사에서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오옥기담』의 상호모순적 특징들을 애정전기소설로서의 양식 규정을 전제로 애정전기소설사의 통시적 전개과정에서 확인되는 전통적 보편성과 20세기적 특수성의 길항작용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18·9세기에 멈춰서

있었던 애정전기소설사의 편폭을 20세기 초엽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애정전기소설사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현대문학사와 평행선상에서 통시적 전개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기반도 근대문학의 시작기이자 현대문학으로의 이행기였던 20세기 초엽에 『오옥기담』이 이루어낸 애정전기소설사의 계승과 전변에 있었음을 입증해낼 수 있을 것이다.

2. 『오옥기담』의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보편성

『오옥기담』 소재 다섯 편의 텍스트들은 나말여초부터 18·9세기까지 지속된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적 전형성 내부에 위치해 있다. 이는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인물의 전형성, 애정전기소설양식적 만남·애정의 성격,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애정갈등의 양상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 애정전기소설적 인물의 전형성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의 남녀주인공은 모두 애정전기소설적 인간의 전형성 내부에 있다. 우선적으로 〈금잠가연〉의 왕생(王生)과 운랑(雲娘), 〈변씨열행〉의 왕생(王生)과 노비녀(奴婢女), 〈선분기담〉의 우심(禹尋)과 하씨녀(河氏女), 〈취란방기〉의 정효사(鄭孝事)와 김씨녀(金氏女), 〈청루의녀〉의 배생(裵生)과 청루녀(靑樓女)는 모두 애정전기소설 주인공들의 전형적인 욕망결핍의 상태에 있는 인물들이다. 예컨대,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의 남주인공 왕생(금잠가연)·왕생(변씨열행)·우심·정효사·배생은 각각 미출사귀족(未出仕貴族)·유생(儒生)·평민소년으로, 미출사귀족인 〈금잠가연〉의 왕생에서 빈곤무학(貧困無學)한 〈선분기담〉·〈취란방기〉의 평민소년으로 갈수록 욕망결핍의 정도가 심화되어 나타난다. 〈금잠가연〉·〈변씨열행〉·〈청루의녀〉의 왕생(금잠가연)·왕생(변씨열행)·배생처럼 남주인공이 현달하지 못한 유생·문사급인 것은 나말여초부터 18·9세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애정전기소설 텍스트에서 일관되는 인물 설정으로, 〈선분기담〉·〈취란방기〉의 우심·정효사

만 15세기 〈만복사저포기〉와 17세기 〈최척전〉의 평민고아 노총각인 양생(梁生)·최척(崔陟)과 같은 인물 설정으로 되어 있다.

한편, 여주인공 운랑·노비녀·하씨녀·김씨녀·청루녀는 각각 평민녀(平民女)·비녀(婢女)·신선녀(神仙女)·귀족녀(貴族女)·기녀(妓女)로서 귀족녀인 〈선분기담〉의 하씨녀에서 귀신인 〈변씨열행〉의 노비녀로 갈수록 욕망결핍 상태가 강화된다. 〈선분기담〉·〈취랑방기〉의 신선녀 하씨녀와 귀족녀 김씨녀는 단지 애정욕망의 결핍상태에 있을 뿐이지만, 〈금잠가연〉·〈변씨열행〉·〈청루의녀〉의 평민녀·귀신녀·기녀인 운랑·노비녀·청루녀는 자신의 고고한 뜻과 자질에 부합하지 않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내적 욕망의 결핍을 겪고 있는 여성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선분기담〉·〈취랑방기〉의 신선녀 하씨녀와 귀족녀 김씨녀처럼 자신의 자질과 부합하는 신분을 배경으로 애정욕망의 결핍만을 지니고 있는 귀족 출신 여성인물은 나말여초 〈조신〉의 김씨녀와 16세기 〈하생기우전〉의 귀족출신 귀족녀(貴族女), 17세기 〈최척전〉·〈주생전〉·〈위경천전〉의 옥영(玉英)·선화(仙花)·소숙방(蘇淑芳), 18세기 〈백운선완춘결연록〉의 이옥련(李玉蓮)으로 계보가 소급된다. 반면, 〈금잠가연〉·〈변씨열행〉·〈청루의녀〉의 운랑·노비녀·청루녀처럼 자신의 출신성분에 부합하지 않는 자질로 인해 내적 욕망의 결핍상태에 있는 하층출신의 평민녀·노비녀·기녀는 나말여초 〈김현감호〉·〈최치원〉의 호녀(虎女)·장씨녀(張氏女)와 같은 이물녀(異物女)·상인녀(商人女), 17세기 〈주생전〉·〈동선기〉·〈운영전〉·〈영영전〉의 배도(俳桃)·동선(洞仙)·운영(雲英)·영영(英英)과 같은 기녀·궁녀(宮女), 18세기 〈심생전〉·〈정생전〉·〈빙허자방화록〉·〈백운선완춘결연록〉의 궐녀(厥女)·삼청동녀(三淸洞女)·박매영(朴梅英)·지월련(池月蓮), 19세기 〈절화기담〉·〈포의교집〉의 순매(舜梅)·초옥(楚玉)으로 계보가 귀결된다.

이러한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의 남녀주인공들은 노상(路上)·빈관객사(儐館客舍)·여행지 등 불특정 다수가 일회적으로 스쳐지나가는 공간에서 단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을 이루지만 그렇게 맺은 즉흥적 사랑에 자신이 가진 전부를 걸 수 있는 주정적(主情的) 인간들이기도 하다. 예컨대,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

루의녀〉의 왕생・운랑, 왕생・노비녀, 우심・하씨녀, 정효사・김씨녀, 배생・청루녀는 수로상(水路上)・노상・관광여행지・기거가(寄居家)・청루(청루) 등 불특정 다수가 정주(亭主) 하지 않고 략거(掠過)하는 애정전기소설 양식 특유의 비정주적(非亭主的) 공간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와 즉흥적 사랑을 나누며, 이러한 일회적 사랑에 전인생에 걸친 몰입을 하는 애정전기적 인간들이다.

2) 애정전기소설적 만남・애정의 성격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의 남녀주인공들이 일상인이라면 감히 시도도 못할 즉흥적 만남・애정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비일상적 만남・애정을 자신들의 결핍된 내적 욕망에 대한 치환물로 생각하는 애정전기소설적 인식 방식의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애정전기소설의 주인공들은 즉흥적 만남・애정이 단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특별한 지인지감(知人之感)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데, 이러한 믿음은 바로 애정전기소설의 주인공들을 환경세계와 불화하게 만들며 내적 욕망의 결핍 상태에 빠뜨린 자기애 혹은 자존감에 근거한다. 즉, 애정전기소설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자질이 환경세계가 자신에게 부여한 출신신분 및 가정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는 바, 그러한 자신의 지인지감에 의거하고 있는 즉흥적 만남이라면 자신의 결핍된 욕망을 치환할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애정전기소설적 만남・애정은 즉흥적 만남 상대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지속적 애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애정전기소설의 주인공들이 즉흥적 만남・애정에 목숨을 건 신의를 지키는 것도 같은 인식의 원리에 근거한다. 즉, 즉흥적 만남・애정 상대에 대한 신의가 아니라 그러한 즉흥적 만남・애정 상대를 선택한 자신의 지인지감에 대한 신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흥적 만남・애정 상대에게 신의를 지킨 주인공은 환경세계와 불화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신의를 지킨 인간이 되는 것이요, 즉흥적 만남・애정 상대로부터 신의를 준수 받은 주인공은 환경세계

와 화합하지 못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즉흥적 만남·애정 상대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는 주인공은 환경세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일치 하다고 믿어왔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 불의의 인간이 되며, 그러한 불의의 변심자(變心者)에 대해 죽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지킨 주인공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의를 지킨 인간이 된다는 전형적인 인식이 애정전기소설 양식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오옥기담』소재 다섯 편은 지기지음으로서의 만남과 자기가치에 대한 신의로서의 애정이 남녀주인공 양자 모두에게서 절대적으로 준수되느냐 아니면 남녀주인공 양자 중 한 쪽에서만 준수되느냐에 따라서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전자에는 〈선분기담〉·〈취란방기〉가 속하고 후자에는 〈금잠가연〉·〈변씨열행〉·〈청루의녀〉가 속한다. 우선, 전자의 〈선분기담〉·〈취란방기〉는 모두 여주인공의 신분이 남주인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로, 각각 중국 황후의 환신체와 부유한 귀족인 〈선분기담〉의 여선랑(女仙娘)과 〈취란방기〉의 김씨녀는 남주인공의 결핍된 욕망의 실현물과 신의적 애정의 상대자가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선분기담〉·〈취란방기〉 남주인공들이 자신의 지인지감적 만남과 신의적 애정의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선분기담〉의 경우, 여주인공이 비인간(非人間)이라는 점에서 타자로부터 지기지음적 만남과 신의적 애정의 가치에 대한 의혹을 살 여지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 점에서 〈선분기담〉은 15세기 〈만복사저포기〉·〈취유부벽정기〉와 16세기 〈하생기우전〉의 자장 속에 있는 텍스트가 되며, 〈취란방기〉는 15세기 〈이생규장전〉과 17세기 〈최척전〉·〈위경천전〉·〈주생전〉(선화의 경우)의 계보를 이은 텍스트로 분지된다.

〈선분기담〉·〈취란방기〉의 지기지음적 만남과 신의적 애정의 성격에서 확인되는 결정적인 차이는 여주인공의 결핍된 욕망의 실현물로서 남주인공이 지니는 가치다. 〈선분기담〉은 남성하위·여성상위의 신분관계 속에서 남주인공 우심이 유생의 상층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취란방기〉에서는 남주인공 정효사가 하층의 평민신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취란방기〉의 정효사는 고아로 여주인공 김씨녀의 집에 더부살이 하며 사환 노릇을 할 정도로 출신

신분과 가정환경에 따른 결핍과 고독의 정도가 심화되어 있다. 하층 평민 고아 출신의 정효사가 경험하고 있는 결핍감과 고독감의 정도는 15세기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이나 17세기 〈최척전〉의 최척과 같은 유형성을 지니고 있는 바,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이 자기 욕망결핍의 실현물로 선택한 지기지음적 만남과 신의적 애정의 상대가 비현실적 비인간에서 현실적 인간으로 전환된 경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금잠가연〉·〈변씨열행〉·〈청루의녀〉는 모두 여주인공은 신분이 남주인공보다 낮은 경우로,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의 결핍된 욕망의 투사체는 될 수 있어도 실현태로 인정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두 부류로 재분류된다. 〈금잠가연〉·〈청루의녀〉는 평민녀인 운랑과 기녀인 청루녀가 각각 귀족인 왕생과 유생인 배생의 결핍된 애정욕망의 등가물일 뿐 사회적 욕망결핍의 교환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형이다. 지기지음으로서의 만남 상대와 신의로서의 애정 상대로 여주인공을 선택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지기지음과 신의의 적용 범위가 육체적 욕망에 그친 경우다. 이는 궁극적으로 내적 욕망 실현태와 신의적 애정 대상을 알아보는 지인지감의 진정성이 남주인공에게 부재할 뿐 아니라 지인지감의 주체인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금잠가연〉의 왕생에게 평민녀인 운랑은 그저 투잠(投簪)의 즉물적 행위로 육체적 욕망 실현을 추구할 정도의 대상이며, 〈청루의녀〉의 배생에게 기녀인 청루녀는 5천냥을 탕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육체적 욕망 대상일 뿐으로, 왕생과 배생의 사회적 욕망은 여전히 등가적 치환 상대를 찾지 못한 채 결핍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금잠가연〉·〈청루의녀〉는 17세기 〈상사동기〉·〈주생전〉, 18세기 〈심생전〉·〈정생전〉·〈빙허자방화록〉·〈백운선완춘결연록〉, 19세기 〈절화기담〉·〈포의교집〉의 자장권 속에 위치해 있다. 반면, 〈변씨열행〉은 여주인공의 신분이 남주인공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결핍된 자기 욕망의 등가물로 인정되는 부류다. 유생인 배생은 평민여성과의 즉흥적 노상 만남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욕망 대상에만 그치지 않고 신의적 애정 상대로 인정한다. 이는 배생이 자신의 지인지감과 신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잠가연〉·〈변씨열행〉·〈청루의녀〉는 남주인공의 신분이 일관되게 여주인공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주인공의 결핍된 욕망의 실현태로 인정받는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로 나뉜다. 전자는 〈금잠가연〉·〈청루의녀〉이고, 후자는 〈변씨열행〉이다. 전자의 〈금잠가연〉·〈청루의녀〉에서 귀족과 유생인 왕생·배생은 각각 평민녀와 기녀인 운랑과 청루녀의 결핍된 내적 욕망의 실현태로 선택 및 인정되는데, 특히 〈청루의녀〉에서는 본래 양갓집 규수였으나 전란 중에 부모를 잃고 창가에 떨어진 후 일부러 자기 몸값을 고가로 매겨서 창가라는 환경세계에 가합하지 않는 자신의 가치를 지켜왔던 내면이 곡진히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적 결핍 술회는 나말여초의 〈김현감호〉에서 시작되어 17세기 〈상사동기〉·〈주생전〉(배도의 경우), 18세기 〈심생전〉·〈정생전〉·〈빙허자방화록〉·〈백운선완춘결연록〉(지월련의 경우), 19세기 〈절화기담〉·〈포의교집〉로 이어져온 여성하위·남성상위 신분계열의 애정전기소설 텍스트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것이다.

후자의 〈변씨열행〉에서도 유생인 왕생이 노비녀의 결핍된 내적 욕망의 실현태로 일단 선택되었던 것은 〈금잠가연〉·〈청루의녀〉와 동일하다. 게다가 〈변씨열행〉의 노비녀는 자신의 본래 출신인 평면녀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던 부모의 인신매매 관습에 항거하여 가출한 전적도 있는 인물이다. 다른 평민녀에게는 일상다반사인 인신매매의 관습이 〈변씨열행〉의 노비녀에게는 자신의 자질 및 개체적 정체성과 불화하는 환경세계의 억압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변씨열행〉에서 노비녀는 유생인 왕생을 자신의 결핍된 내적 욕망의 실현태로서 선택해서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상황과 결핍감을 고백했던 것이 된다. 〈변씨열행〉에서 왕생과의 만남에서 토로한 노비녀의 내적 결핍감 고백은 같은 『오옥기담』에 속한 〈청루의녀〉의 청루녀가 배생과의 만남에서 술회한 내적 결핍감의 고백 내용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변씨열행〉의 노비녀 역시 나말여초의 〈김현감호〉, 17세기 〈상사동기〉·〈주생전〉, 18세기 〈심생전〉·〈정생전〉·〈빙허자방화록〉·〈백운선완춘결연록〉, 19세기 〈절화기담〉·〈포의교집〉으로 이어져온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적 관습 내부에서 왕생과의 만남·애정을 이루었던 것이다.

3)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애정갈등의 양상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는 애정갈등의 원인이 남녀주인공 당사자 내부에 있느냐 아니면 외부의 환경세계 속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두 유형으로 나뉘는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적 전형성을 보여준다. 애정전기소설에서는 애정갈등의 원인이 남녀주인공 당사자 내부에 있으면 변심적 애정갈등 유형이 되고, 반대로 애정갈등의 원인이 남녀주인공 당사자 외부에 있으면 불변적 애정갈등 유형이 된다. 전자에서는 애정파국이 남녀주인공 당사자의 진정성 없는 태도나 변심에 의한 배신에 의거하며, 후자에서는 애정장애가 남녀주인공을 둘러싼 주변인물이나 주변상황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변심계 애정전기소설의 전형적인 텍스트에는 나말여초의 〈김현감호〉·〈조신〉, 17세기의 〈상사동기〉·〈주생전〉, 18세기 〈심생전〉·〈정생전〉·〈빙허자방화록〉·〈백운선완춘결연록〉, 19세기 〈절화기담〉·〈포의교집〉이 있는데, 『오옥기담』 중에서는 〈금잠가연〉·〈변씨열행〉·〈청루의녀〉가 이 유형을 계승했다. 우선, 〈금잠가연〉에서는 왕생이 운랑과의 결연 이후에 유희적인 태도로 돌변하여 유부남인 척 농을 하다가 왕생이 변심한 것으로 생각한 운랑이 물에 빠져 자살하면서 애정의 파탄을 맞고, 〈청루의녀〉에서는 청루녀의 진정성에 부담을 느낀 배생이 자신이 이미 탕진한 재산의 두 배를 쳐주겠다는 이생에게 청루녀를 팔아넘기자 배생의 배신에 절망한 운랑이 투신자살 하면서 애정의 파국을 맞는다. 〈금잠가연〉·〈청루의녀〉의 애정갈등은 대단원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전자의 〈금잠가연〉에서는 경우 목숨을 부지한 운랑의 의지와 자기반성한 왕생의 회심에 의해 기왕에 파탄되었던 애정이 회복되어 해피엔딩을 맞는 반면, 후자의 〈청루의녀〉에서는 경우 자기반성이 부재한 배생에 의해 애정의 파국은 회복 없이 지속되는 새드엔딩으로 되어 있다. 반면, 〈변씨열행〉에서는 특이하게도 변심 주체가 여성인 노비녀다.

다음으로 애정불변계 애정전기소설에는 나말여초의 〈최치원〉, 15세기의 〈이생규장전〉·〈만복사저포기〉·〈취유부벽정기〉, 16세기의 〈하생기우전〉, 17세

기의 〈운영전〉·〈동선기〉·〈위경천전〉·〈최척전〉이 있는 바, 『오옥기담』에서는 〈선분기담〉·〈취란방기〉가 이 유형에 속한다. 먼저, 〈선분기담〉에서는 애정장애의 요인이 인간과 비인간의 세계 간극이라는 환경적 형태로 존재한다. 〈선분기담〉의 남녀주인공 우심과 신선녀 양자 사이에는 애정갈등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남·애정을 통해 애정욕망의 결핍을 해소한 우심과 신선녀 중 어느 누구 하나도 변심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심은 신선녀가 준 신비의 금낭(錦囊) 덕분에 평민소년으로서는 감히 꿈꿀 수조차 없는 과거급제를 함으로써 사회적 욕망의 결핍감까지 일거에 해소하기까지 한다. 우심에게 있어서 선녀와의 만남·애정은 애정욕망의 결핍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결핍해소까지 야기한 완전한 내적욕망의 실현태였던 것이다. 문제는 선녀가 본래 요(堯) 임금의 두 딸로서 순(舜) 임금의 황후가 되었다가 순임금이 죽은 후 상강(湘江)에 빠져죽음으로써 상군(湘君)이 된 아황(娥皇)·여영(女英)의 화신이라는 데 있다. 신선녀는 명계(冥界)의 인물이기 때문에 우심과 신선녀가 만남·애정을 통해 기왕에 이룬 내적 합일(合一)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원천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우심·신선녀의 만남·애정은 필연적인 이별을 내재한 한시적인 것으로, 외재적인 애정갈등의 요소를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유명(幽明)의 차이가 선험적인 외재적 애정장애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선분기담〉의 애정갈등은 15세기의 〈이생규장전〉(2차 이별의 경우)·〈만복사저포기〉·〈취유부벽정기〉, 16세기의 〈하생기우전〉의 하위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취란방기〉에서는 애정장애의 요인이 상층과 하층의 신분차이라는 환경세계의 외재적 요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 〈선분기담〉과 마찬가지로 남녀주인공인 정효사와 김씨녀가 만남·애정에서 이룬 내적 합일은 공고하다. 대신, 애정갈등의 원인은 김씨녀 집안이 권문세가인 데다 김씨녀의 다른 세 자매들이 모두 다른 권문세가로 출가하여 완벽한 권문세가 일족을 구성하고 있는데 비해, 정효사가 가난한 평민가 출신의 천애고아라는데 있다. 게다가 정효사는 김씨녀가에 더부살이 하면서 사환 노릇을 하고 있던 실질적인 노복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김씨녀 집안에서는 정효사와의 신분차이를 더욱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취란방기〉에서는 남녀주인공의 신분 차이가 혼사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란방기〉의 외재적 애정갈등 요인은 김씨녀부(金氏女父)·김씨녀 형부(金氏女兄夫)·김씨녀가복(金氏女家僕)이란 제3자적 인물로 구체화 되어 있다.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김씨녀의 의지로 정효사와의 만남·애정은 정식혼인으로 실현되지만, 김씨녀부를 필두로 한 김씨녀가 구성원들의 박대는 정효사·김씨녀의 혼인유지를 힘들게 하는 외재적 애정갈등의 요인이 된다. 이미 이룬 혼인에 대한 외재적 애정장애 요소가 남주인공에 대한 여주인공 일가의 사위박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이전의 애정전기소설에서는 선례가 없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이전의 애정전기소설에서는 기왕에 완결된 정식혼인의 유지를 방해하는 외재적 애정장애 요인으로 전란과 유명의 차이를 설정해 왔다. 전란과 유명의 차이가 모두 혼인관계 유지의 장애요소로 설정되어 있는 텍스트로는 15세기의 〈이생규장전〉이 있고, 전란만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외재적인 애정갈등 요소로 등장하는 경우로는 17세기의 〈최척전〉·〈위경천전〉이 있는 바, 〈취란방기〉는 이들 전대 애정전기소설의 전란이란 외재적 혼인관계 장애요소를 집안 내부의 사위박대로 대체해 놓은 형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타의 설화나 고소설에서 확인되는 처가의 사위박대담이 장모를 주축으로 한 데 비해, 〈취란방기〉에서는 장인을 주체로 한다는 점도 특이한 설정이 된다.

〈선분기담〉과 〈취란방기〉는 외재적 애정갈등 요소의 구체적인 양상도 다르지만 극복방식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선분기담〉은 이승의 하씨녀로 부활한 여주인공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유명의 차이가 만들어놓은 외재적 애정장애가 해결이 되어 해피엔딩에 이르지만, 후자의 〈취란방기〉에서 여주인공 김씨녀 일족의 사위박대라는 외재적 애정장애를 해소하는 주체는 여주인공 김씨녀가 아니라 남주인공 정효사다. 정효사는 장인이 죽은 후 황성으로 이사함으로써 김씨녀 일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과정에서 더욱 증폭되었던 처가의 사위박대 환경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뒤에,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고난 속에서도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됨으로써

외재적 애정장애를 해결한다. 이에 더하여 정효사는 물론 김씨녀의 세 형부들이 탕진한 김씨녀가의 가산도 회복시켜줌으로써 근본적으로 환경세계의 신분차이에 의거해 있었던 외재적 애정장애를 자신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하여 해피엔딩을 맞는다. 외재적 애정장애 요소의 해결과 해피엔딩의 야기 주체가 여주인공이냐 남주인공이냐에 〈선분기담〉과 〈취란방기〉는 각기 다른 패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오옥기담』의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전변 국면과 통시사적 의미

『오옥기담』 소재 다섯 편의 텍스트들은 나말여초부터 18·9세기까지 지속된 애정전기소설 양식의 유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형적 클리쉐의 설정과 형상화 방식을 미시적으로 변형시키는 전변의 국면을 보여준다. 이처럼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에서 확인되는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전변 국면의 의미는 이전 시기의 애정전기소설 텍스트들과의 통시적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오옥기담』 소재 다섯 편의 텍스트들이 형성하는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전변 국면과 그 통시사적 의미는 지기지음적 만남·애정 매개체의 기능상실과 즉물적 신물(信物) 출현, 한국 시공간 배경 및 전란 화소의 소실과 비현실성 확대, 신의에 대한 보상과 여성변심에 대한 징벌 확대라는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지기지음적 만남·애정 매개체의 기능상실과 즉물적 신물 등장

『오옥기담』 소재 다섯 편의 텍스트들에서는 애정전기소설 양식의 전형성을 이루는 주요 요소인 지기지음적 만남·애정 매개체로서의 한시창수(漢詩唱酬) 혹은 가악연화(歌樂演和)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오직, 〈선분기담〉에서만 남주인공 우심이 한시를 한 수 읊지만 여주인공 신선녀의 한시 창화가 이어지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금잠가연〉에서는 한시도, 가악도 아닌 투금(投金)으로 대체되어 있다. 〈금잠가연〉의 금잠 던지기는 한시·가악창화에 의한 지기지음적 만남·애정 서사를 문인취향적인 것에서 물질지향적인 것

으로 변이시킨 결과 만들어진 것이다. 문인취향의 플라토닉한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으로 변모한 결과 전자의 서사적 상징이었던 한시·가악창화가 후자의 물질적 서사로 변이된 것이 바로 금잠 던지기 화소라는 것이다. 이는 18세기 애정전기소설인 〈빙허자방화록〉에서 빙허자와 박매영의 만남·결연이 귤 던지기인 투귤(投橘) 화소를 통해 매개되었던 양상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투귤은 중국 당대(唐代)·명대(明代) 애정전기소설인 〈두목(杜牧)〉·〈양주몽기(楊州夢記)〉에서 남주인공의 지기지음적이 아닌 향락적 만남·애정지향적 태도를 상징하는 고사로 등장했던 것으로, 〈빙허자방화록〉에서 전고(前古)로서 인용된 것이다.

기실, 남녀주인공이 한시를 짓거나 읊은 것을 주고받거나 악기 연주를 주고받는 것은 상대가 자신의 결핍된 내적 욕망의 투사체임을 알아보기 위한 양식적인 관습으로, 상대가 자신이 짓거나 읊은 한시 혹은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가악(歌樂)에 화답할 수 있어야 자기 욕망결핍의 실현태로 인정한다는 것이 된다. 이는 나말여초부터 문인지식인을 향유층으로 하여 출발했던 애정전기소설 양식의 태생에 기원한다. 나말여초의 〈최치원〉에서 시작된 이러한 한시창수와 가악연화의 지기지음적 만남·애정의 서사장치는 15세기의 〈이생규장전〉·〈만복사저포기〉·〈취유부벽정기〉에 와서 애정전기소설 양식의 전형적인 클리쉐로 확립되었으며, 16세기 〈하생기우전〉과 17세기 〈운영전〉·〈상사동기〉·〈동선기〉·〈주생전〉·〈최척전〉·〈위경천전〉에 이르러 전방위화 되었으며, 18세기를 건너뛰고 19세기의 〈포의교집〉으로 계승된 바 있다. 17세기는 한시창화를 통한 지기지음적 만남·애정의 서사화 장치에 대한 인기가 정점을 이룬 시기로, 〈최척전〉과 〈동선기〉에서는 가악연화에 의한 지기지음의 상호확인 패턴이 새롭게 개발되어 추가되기도 했다. 〈최척전〉에서는 남주인공 최척의 퉁소 소리에 화답한 여주인공 옥영의 창화시로 재회가 이루어지고, 〈동선기〉에서는 여주인공 동선의 가요 소리에 화답한 남주인공 서문적의 창화시로 만남이 성립된다.

18세기를 기점으로 애정전기소설사에서는 남녀주인공의 지기지음적 만남·애정 매개체로서의 한시·가악창화가 서사적 장치로서의 위상을 상실했다

고 볼 수 있다. 18세기 애정전기소설 중에서 유일하게 남녀주인공의 창시가 등장하는 〈빙허자방화록〉에서도 여주인공 박매영과의 이별 이후 남주인공 빙허자가 일방적으로 읊는 한시만이 등장할 뿐, 남녀주인공 양자 간에 한시의 창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패턴은 19세기 〈절화기담〉에서도 그대로 계승되는 바, 만약 20세기 초의 『오옥기담』에서 지기지음적 만남·애정 매개체로서의 한시·가악창화가 전형적인 서사장치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시·가악창화의 지기지음적 만남·애정의 서사적 기능 상실은 18·9세기 이후의 거시적 흐름이 20세기 초엽까지 지속된 것이 된다. 『오옥기담』 소재 다섯 편의 텍스트 중에서 한시·가악창화의 지기지음적 만남·애정의 서사적 매개체로 등장하는 경우는 단 한 편도 없기 때문에 한시·가악창화의 지기지음적 만남·애정의 서사적 기능 상실이란 18·9세기의 새로운 현상은 『오옥기담』 덕분에 20세기까지 이어지는 주도적인 흐름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옥기담』에서 확인되는 바, 한시·가악창화를 통한 지기지음적 만남·애정 확인 서사의 생략은 18·9세기적 현상을 확대 계승한 것이지만, 18·9세기 애정전기소설사에 새로운 전변 현상으로 등장하였던 한시·가악창화의 지기지음적 만남·애정의 서사적 기능 상실이 20세기에도 주류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오옥기담』 이후로 정착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2) 한국 시공간 배경 및 전란 화소의 소실과 비현실성 확대

『오옥기담』 소재 다섯 편의 텍스트에서는 한국의 시공간이 일체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란 화소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오옥기담』 소재 다섯 편의 텍스들이 모두 1900년대의 창작시기와 불일치하는 중국의 시공간적 배경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는 각각 중국 청(淸) 나라 양자강변(揚子江邊)(〈금잠가연〉), 청(淸) 나라 대원서역(大遠西域)(〈변씨열행〉), 중국 호남성(湖南省)(〈선분기담〉·〈취란방기〉), 중국 북경(北京)(〈청루의녀〉)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일곱 편의 텍스트들에 대해서는 20세기초 당대의 변화된 시대의식 및 시대상을 반영한 가변서사를 투입함으로써 애정전기소설의 오리지널 프로토타입 및 오리지널 텍스트를 전대 매체 및 당대 매체를 통해 재매개화 했다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은 중국적 시공간의 전유를 통해 한국적 시대의식 및 시대상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고소설의 전통적인 서사관습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고소설은 관습적으로 중국을 몽유록이나 비애정계 애정전기소설의 이계(異界)처럼 전유해왔기 때문이다. 현실세계에서 향유층이 경험한 문제의식을 중국을 시공간으로 하여 축조하는 서사방식이 된다. 대부분의 가문소설이 중국을 시공간으로 하여 조선조 사대부 지배층의 가문 창달 및 유지 의식 형상화 해온 것이나 영웅소설의 대다수가 중국 시공간을 통해 민중들의 신분상승의식을 표출해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전자의 경우 중국적 시공간은 중세 중화질서 속에서 조선의 가문소설 향유층에게 가문 창달・유지 이념의 정수를 글로벌하게 구축해 주는 서사적 수단으로 인식되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 중국적 시공간은 조선의 영웅소설 향유층에게 전망부재의 닫힌 조선조 현실을 허구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세계화 된 배경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애정전기소설 역시 중국적 시공간을 통해 각 시대별 시대의식과 현실인식을 우회적으로 표상하거나 중화질서의 세계화 된 틀 속에 확장시켜 형상화하는 고소설의 서사관습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 애정전기소설은 출발 단계에서부터 국내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중국 중심의 글로벌한 세계관 속에 확산시켜 구축하는 동시에 중국 캐릭터를 통해 국내 향유층의 문제의식을 우회적으로 형상화 함으로써 국내 현실에 대한 전망 부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서사방식을 구사해 왔다. 나말여초의 대표적인 애정전기소설인 〈최치원〉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최치원〉에서 남주인공 최치원의 결핍된 사회적 욕망은 중국적 시공간을 배경으로 당나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던 중화질서를 통해 확산되어 있으며, 당대 여성의 삶의 조건에 대한 〈최치원〉 향유층의 문제인식은 중국적 시공간 속에 위치해 있는 중국 여성 캐릭터들을 통

해 우회적으로 형상화 되어 있는 바, 중국 시공간 속의 중국 여성 캐릭터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당대 여성들의 욕망 결핍을 말하는 서사방식은 여성적 삶의 조건에 현실적 전망부재를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주생전〉·〈위경천전〉·〈동선기〉는 이러한 중국적 시공간에 대한 〈최치원〉의 서사적 활용 관습을 계승한 17세기 애정전기소설이 된다.

게다가 『오옥기담』 소재 5개 단편소설이 20세기초가 아닌 훨씬 이전의 청나라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의고적(擬古的)인 시대조응성이 된다. 굳이 고소설 전반으로 확장하지 않더라도 애정전기소설은 과거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당대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서사전략을 사용해 왔다. 예컨대, 15세기 조선의 산물인 〈이생규장전〉·〈만복사저포기〉·〈취유부벽정기〉는 세조의 왕위 찬탈이라는 당대의 정치적 격동에 조응한 작가 김시습의 개인적인 절의 관념을 각각 고려 명종(明宗) 11년(1181년)의 12세기 개경(開京), 고려 말의 전라도 남원(南原), 고려 말의 평양(平壤)을 통해 의고적으로 형상화 한 15세기 애정전기소설이 된다. 15세기 애정전기소설의 의고적 시대조응 방식은 16세기 〈하생기우전〉으로도 계승되고 있는 바, 16세기 조선조의 산물인 〈하생기우전〉은 〈이생규장전〉·〈만복사저포기〉·〈취유부벽정기〉와 같은 고려 말의 개경을 시공간으로 하여 16세기 시대 현실에 대한 향유의식을 우회적으로 구현한 경우가 된다. 따라서 『오옥기담』은 애정전기소설의 전통적인 의고적 시대조응 서사관습을 20세기초의 시대현실과 의고적 시공간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계승한 단편애정전기소설집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에서 이루어진 한국적 시공간과 전란 화소의 소실은 『오옥기담』에서 이루어진 비현실성의 상대적 확대와 관련되어 있다.[9] 『오옥기담』의 비현실성 확대가 한국적 시공간 및 전란 화소 소실과 연계되는 양상은 한국적 시공간과 전란 화소를 통해 현실성을 확대해온 애정전기소설사의 전반적인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 전대의 애정전기소설사가 한국적 시공간과 전란 화소의 서사적 구축을

9) 『오옥기담』에서 확인되는 한국적 시공간의 소실에 따른 비현실성의 상대적 확대가 지니는 의미는 챕터 4—2)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통해 현실성의 확장을 꾀해 왔다면, 이와 반비례적으로 『오옥기담』은 한국적 시공간과 전란 화소의 서사적 소실을 통해 비현실성의 확대라는 20세기적 애정전기소설의 새로운 전변 국면을 구현했다는 것이다.

우선, 전자의 한국적 시공간은 전대의 19세기 애정전기소설사에서 현실성을 핍진하게 구현하는 서사적 장치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바 있다. 나말여초의 〈조신〉·〈김현감호〉, 16세기의 〈하생기우전〉, 17세기의 〈운영전〉, 18세기의 〈빙허자방화록〉·〈정생전〉, 19세기 〈절화기담〉·〈포의교집〉에서 보듯, 한국적 시공간 속에서도 남녀주인공의 비현실적 만남과 이합(離合)은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 시공간이 현실성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17세를 기점으로 한국적 시공간을 선택한 데 비례하여 현실성이 확장된 애정전기소설 텍스트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국적 시공간은 현실성과 일치하는 서사적 장치로 성립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적 시공간이 현실성의 지표로 작용하는 17세기 텍스트로는 〈상사동기〉·〈최척전〉이 있는데, 중국의 시공간을 주된 배경으로 하면서도 한국의 전란이 남녀주인공의 만남과 이합의 계기로 작용하는 〈주생전〉·〈위경천전〉까지 포함한다면 17세기 애정전기소설사에서 한국적 시공간과 현실성 간의 비례관계가 가지는 비중은 3/5 정도로 증대된다. 18세기로 가면 전체 4편의 작품 중에서 한국적 시공간이 현실성의 지표로 작용하는 작품의 숫자가 다시 한편으로 줄어들지만, 19세기 애정전기소설사에서는 모든 작품에서 한국적 시공간이 곧 현실성의 지표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다.

그런데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는 일관되게 모두 중국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예컨대, 〈금잠가연〉은 중국 청나라와 양자강 주변을 주된 시공간으로 하고 있다. 양자강변에서 운랑과의 만남과 결연을 이룬 왕생이 자기 고향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양자강변으로 옮겨가서 부활한 운랑과 재회하고 있는데, 왕생의 고향이 어느 지역인지는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금잠가연〉의 서사공간은 양자강변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남방 지역으로 되어 있다. 〈변씨열행〉은 중국 청나라와 중국 대원 지역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원 땅은 오늘날의 중앙아시

아에 해당한다. 중앙아시아는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중국인들이 서역으로 표기하던 지역으로, 흔히 중국 고소설·설화에서 요괴와 요물이 난립하는 환상적 공간으로 형상화 되어 왔다. 〈서유기〉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바, 악귀로 변신한 〈변씨열행〉의 변심녀가 대원 땅 출신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중앙아시아에 대한 고대·중세 중국의 서방인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선분기담〉의 경우는 시간적 배경의 특정 없이 단지 공간만 중국 호남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시간적 배경이 특정되지 않는 대신 공간적 배경은 중국 호남성 중에서도 아황과 여영이 빠져죽은 소상강변의 누대로 특정되어 있다. 〈취란방기〉 역시 〈선분기담〉처럼 특정되지 않는 시간적 배경 속에서 주된 공간적 배경만 호남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남녀주인공인 정효사와 김씨녀의 이동경로를 따라 공간적 배경은 호남성에서 황성인 북경으로 확장되었다가 다시 호남성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청루의녀〉는 역시 불특정의 시간적 배경 하에서 북경을 주된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북경을 중심으로 장안과 압록강변을 포괄하고 있으며, 주인공 배생의 이동경로를 따라 장안에서 북경을 거쳐 압록강변으로 공간적 배경이 옮겨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처럼 일괄적으로 중국적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에서는 비현실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남녀주인공의 마남과 이합이 비현실성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취란방기〉 단 한 작품뿐이다. 예컨대, 〈금잠가연〉에서는 물에 빠져 자결했던 여주인공 운랑이 되살아나고, 〈변씨열행〉에서는 여주인공 침모가 악귀로 변신하며 남주인공 왕생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선분기담〉에서는 남주인공 배생이 이비(二妃)의 환신인 선녀와 결연했다가 선녀의 환생인 하씨녀와 혼인하며, 〈청루의녀〉에서는 남주인공 배생의 변심으로 강에 빠져 자결했던 여주인공 청루녀의 원혼이 자신의 시체를 건져 제사를 지내준 사공에게 무수한 암소를 얻을 수 있는 금낭을 준다. 19세기까지 한국적 시공간과 비례하여 현실성을 확장시켜온 애정전기소설사가 20세기 초엽의 『오옥기담』에 와서 중국적 시공간에 비례하여 비현실성을 확장시키는 새로운 전변의 국면을 구현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후자의 전란은 17세기 애정전기소설에사에서 남녀주인공의 만남

과 이합의 현실성을 구현하는 서사적 장치로 확고히 구축된 바 있다. 15세기 애정전기소설사에서는 남녀주인공의 비현실적 이합 및 만남 계기로 기능했던 전란은 17세기 애정전기소설사에서 〈동선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일괄적으로 남녀주인공의 현실적 만남과 이합의 매개체로 변모한 사실이 확인된다. 예컨대, 15세기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에서 전란은 남녀주인공의 비현실적 이합·만남의 서사적 계기소였지만, 17세기 〈주생전〉·〈최척전〉·〈위경천전〉에서 전란은 남녀주인공의 현실적 만남·이합의 계기소로 변신한 바 있다. 18세기 애정전기소설사에서도 전란은 남녀주인공의 현실적 만남·이합의 계기소라는 서사적 기능을 지속하고 있는 바, 〈백운선완춘결연록〉에서 이러한 양상이 확인된다. 다만, 〈빙허자방화록〉에서는 전란이 현실적 만남을 추동하는 계기소였지만 동시에 인귀교환에 의한 남녀주인공의 비현실적 이합을 야기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점에서 전란과 현실성의 정합관계는 절반 정도로 약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애정전기소설사에서는 전란이 남녀주인공의 현실적인 이합과 정합하고 있는 양상이 〈포의교집〉에서 확인된다. 애정전기소설사에서는 현실성 구현을 위한 계기소로서의 전란 화소가 17세기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한 후, 비록 숫자는 줄었지만 18·9세기까지 지속적인 흐름은 이어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오옥기담』에서는 전 작품에서 전란 화소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오옥기담』에 이르러 남녀주인공의 현실적 만남·이합을 위한 계기소로서의 서사적 기능을 전란이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바, 전란이 남녀주인공의 만남·이합을 추동하는 서사적 매개체로 작용하는 비중이 17세기를 기점으로 점점 축소되어 가던 애정전기소설사의 흐름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3) 신의에 대한 보상과 여성변심에 대한 징벌 확대

『오옥기담』소재 다섯 편의 작품에서는 신의에 대한 보상과 변심에 대한 징벌이 확대되어 있다. 먼저, 전자의 신의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원래 애정전기소설 양식은 전형적으로 신의에 대한 지향성과 변심에 대한 지양

성을 내포하고 있다. 애정전기소설은 결핍된 자기욕망의 등가물이자 실현태로서의 지기지음적 만남과 애정을 추구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신의는 추구 대상일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변심은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비록 변심 테마를 형상화 한 텍스트라 할지라도 변심은 애정전기소설에서 양식적으로 지양적 가치가 된다는 것이다. 변심 테마의 구현 자체는 현실 세태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작가적 의식지향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그런데 18·9세기까지의 애정전기소설사에서 신의는 지향적 가치일망정 보상의 대상이 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17세기의 〈동선기〉·〈최척전〉와 18세기의 〈백운선완춘결연록〉 정도가 신의에 대한 등가보상 관계가 거론될 수 있는 작품의 전부인데, 그나마도 〈동선기〉·〈최척전〉에서는 해피엔딩일 수는 있어도 신의에 대한 등가보상 관계가 완벽히 성립될 수 없다. 예컨대, 〈동선기〉는 서문적에 대한 신의를 지킨 대가로 동선이 서문적 일가에게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서문적의 정식 부인이 되지도 못했을 뿐더러, 대단원에서 서문적과 동선은 가산을 버리고 도죽산이라는 속세와의 절연공간으로 칩거해 버린다는 점에서 애정전기소설 양식 특유의 부지소종의 결말로 되어 있다. 남녀주인공의 애정은 해피엔딩이지만 남녀주인공과 환경세계와는 단절되기 때문에 자아의 사회적 욕망은 충족되지 못하고 영원한 결핍으로 남기 때문이다. 신의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없다. 〈최척전〉도 마찬가지다. 최척과 옥영이 서로에 대한 상호신의를 지켰지만 이로 인해 두 사람이 획득한 별도의 사회적 보상은 없다. 상호신의에 비례하여 최척과 옥영의 애정이 성취됨으로써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사랑의 해피엔딩만이 있을 뿐이다.

반면, 〈백운선완춘결연록〉은 다르다. 〈백운선완춘결연록〉에서 남녀주인공의 상호신의를 통한 애정성취가 사랑의 해피엔딩 외에 특별한 사회적 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은 남주인공 백운선의 두명의 애정상대 여성 중 상층귀족 출신인 이옥련에만 해당된다. 중인층 출신의 여주인공 지월련 역시 백운선과의 애정성취에 성공함으로써 사랑의 해피엔딩을 맞지만, 지월련이 맞이한 이 사랑의 해피엔딩은 사회적 함의가 이옥련과는 다르다. 유교이념에 입각한 신분제 사회에서 중인여성은 상층남성의 정식 혼인상대자가 될 수 없

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육욕의 충족대상이 되었다가 버려지며, 축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말로다. 〈정생전〉·〈심생전〉·〈빙허자방화록〉 같은 18세기 애정소설에서 수없이 명멸한 중인출신 여주인공들의 비극적 최후는 유교적 신분이념을 내면화 한 남주인공 혹은 남주인공 집안으로부터 정식 혼인상대자로 인정받지 못한 절망감의 소산이다.

〈백운선완춘결연록〉의 공간적 배경인 중국이라고 해서 이 문제는 다르지 않다. 중국문학의 불세출의 명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앵앵전〉에서도 중인출신 여주인공 앵앵은 중인여성을 일회적 육욕 충족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정식 혼인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남주인공 장생(張生)에 의해 배신당해 일방적으로 버림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유교적 관념 체계 속에서라면, 중인여성 지월련은 〈백운선완춘결연록〉이 중국적 시공간을 통해 가탁해 놓은 유교적 신분질서 속에서 버려지거나 배신의 절망감에 비극적 죽음을 맞는 것이 당연하지 이옥련과 같은 상층여성처럼 사랑의 해피엔딩은커녕 정식 혼인의 상대자가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백운선완춘결연록〉의 지월련이 백운선과 정식 혼례를 올린 것은 중인여성에게는 유교적 신분질서 속에서 결코 주인여성에게 주어질 수 없는 특별한 보상을 변치 않는 신의의 대가로 받은 것이 된다.

게다가 지월련의 영원한 신의는 백운선의 변심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유교적 신분관습을 무시하며 지월련이 획득한 보상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상층여성인 이옥련은 상대남성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중인여성인 지월련은 이러한 유교적 의무의 책임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유교적 정절 의무의 부과 대상이 아닌 중인 이하의 계층 출신 여성이 정절을 지켰을 때 정려(旌閭)라는 보상을 내리는 것은 유교적 정절관념에 대한 준수책임을 지배층 여성에게 상기시키는 동시에 피지배층 여성에게까지 전파시키기 위한 통치방법의 일환이다. 동시에 사회구조적 약자인 여성의 자발적인 유교적 성취를 특별히 보상함으로써 남성 중심적 유교사회의 기득권자인 남성에게 유교적 책임 준수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지월련

의 비(非)의무적 정절 준수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이러한 일반적인 유교적 지배관념을 내면화 한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백운선완춘결연록〉에서 지월련과 정식 혼인을 한 백운선은 고관대작의 지위를 버리지도 않기 때문에 백운선의 정실 부인이 된 지월련은 최기득권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마음껏 누린다. 뿐만 아니라 본래 역관이었던 지월련의 부친 지만춘(池萬春)도 출신성분상 불가능한 예부판돈(禮部判敦)의 고위직에 오르기까지 한다. 지월련이 이룬 특별한 신의에 대한 예외적 보상은 철저히 체제내적인 것일 뿐일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도 세속적・현실적으로 고위직의 지위를 담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17세기에 여주인공이 하층의 궁녀 출신으로서 남주인공의 변심에도 불구하고 신의를 지킨 결과 남주인공의 변심을 돌이켜 애정의 해피엔딩을 맞았던 〈상사동기〉와 〈백운선완춘결연록〉이 분지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상사동기〉의 하층 궁녀 출신 여주인공 영영은 상층 유생 출신 김생의 변심에도 변치 않고 지켜낸 신의의 특별함을 인정받아 애정의 해피엔딩을 맞았지만, 김생은 기왕에 획득한 장원급제의 지위도 반납하고 정식 혼인도 올리지 않은 채 영영과 더불어 세상과 고립된 상태로 자처해서 들어간다. 하층 궁녀 출신인 영영과의 정식 혼인이 지배적인 유교적 신분질서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혼례 없는 영영과의 사실혼 관계 또한 환경세계의 유교적 신분질서로부터 용납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장원급제라는 기득의 사회적 욕망과 애정 욕망을 맞바꾼 김생의 선택은 애정전기소설적 인간의 본원적 결핍 상태로 절반 정도 복귀한 것이 된다.

18세기의 〈백운선완춘결연록〉은 〈상사동기〉에서 김생의 변심을 특별히 지칭했던 “정수사변(情隨事變)”이란 표현을 약간 변형한 “정리사다(情移事多)”란 표현으로 남주인공 백운선의 변심을 묘사할 정도로 전시대 애정전기소설인 〈상사동기〉를 의식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아예 〈백운선완춘결연록〉의 유일필사본이 〈상사동기〉의 한 이본과 합철되어 있기도 하다. 〈백운선완춘결연록〉은 17세기 〈상사동기〉에서 부분적으로 시도했던 바, 요구받지 않은 신의를 준수한 중하층 계층 출신 주인공에게 유교적 신분질서상의 예외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서사적 설정을 사회적인 측면으로까지 완전하게 확장한 18세기 애정전기소설이 되는 것이다.

『오옥기담』은 이렇게 18세기 애정전기소설사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던 바, 자발적 신의 준수에 대한 예외적 보상이라는 서사적 지향을 20세기 초엽에 와서 양적·질적인 양방향으로 확대 계승한 경우가 된다. 『오옥기담』에서 출신 계층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신의를 지킨 결과 특별한 보상을 받는 텍스트는 〈금잠가연〉·〈선분기담〉·〈취란방기〉로, 총 세 편이나 된다. 18세기 애정전기소설사에서는 〈백운선완춘결연록〉 단 한 편에 그쳤던 것이 20세기 초엽의 애정전기소설사에 와서는 양적으로 확대 재생산 된 것이다. 게다가 〈금잠가연〉·〈선분기담〉·〈취란방기〉에서 유교적 신분질서로부터 요구되지 않는 신의를 지킨 주인공의 출신성분은 일관되게 평민층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옥기담』은 중인층의 예외적 신의를 대상으로 했던 〈백운선완춘결연록〉의 보상원리를 질적으로도 확산시킨 작품이 된다.

예컨대, 〈금잠가연〉·〈선분기담〉·〈취란방기〉에서 평민의 출신계층상 요구되지 않는 신의를 특별히 지킨 신의자는 각각 여주인공 운랑, 남주인공 우심과 정효사다. 이들이 획득한 보상의 수준과 범위는 〈금잠가연〉의 운랑에서 〈선분기담〉의 우심을 거쳐 〈취란방기〉의 정효사로 갈수록 제고된다. 〈금잠가연〉의 운랑은 상층귀족인 왕생의 정식 아내가 되는데 그치지만, 〈선분기담〉의 우심은 역시 상층귀족인 하씨녀의 정식 남편이 되는 동시에 장원급제와 가문창달에까지 이르고, 〈취란방기〉의 정효사는 상층귀족인 김씨녀와 정식 혼례를 올린 후 처가 심한 박대에도 아내에 대한 신의를 지킨 결과 장원급제에 따라 가문창달은 물론 관직이 최고위직인 승상에까지 이른다. 물론, 〈금잠가연〉에서 왕생의 변심에도 불필요한 신의를 굳건히 준수한 여주인공 운랑은 출신성분이 평민이라는 점에서 17세기 〈상사동기〉와 18세기 〈백운선완춘결연록〉에서 연달아 이루어진 서사적 시도를 한층 더 진일보시키기는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애정성취 차원의 해피엔딩에 한정될 뿐이다. 반면, 〈선분기담〉·〈취란방기〉의 우심과 정효사는 상층귀족 여성과의 애정성취 차원의 해피엔딩은 물론 장원급제와 가문창달, 그리고 관로의 최정점인 승상

의 지위에까지 오름으로써 체제내부의 사회적 보상을 최고 수준으로 획득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오옥기담』이 20세기 초엽에 와서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신의를 계승·확장 하는 방식에는 비단, 〈금잠가연〉·〈선분기담〉·〈취란방기〉의 서사적 보상만이 있지 않다.『오옥기담』은 변심에 대한 징벌을 통해 애정전기소설의 전형적인 신의 지향성을 강화한다. 변심한 주인공에 대한 징치는 자동적으로 변심에 대한 반성 및 신의 준수에 의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변심징벌은 신의함양에 대한 지향성 설파를 위해 고안된 또 다른 형태의 서사적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신의에 대한 보상이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신의 강조를 위한 당근이라면 변심에 대한 징치는 채찍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신의 함양을 위한 보상의 역설적 형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오옥기담』중에서도 바로 〈변씨열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변씨열행〉의 여주인공 평민녀는 유교적 신분이념이 평민에게는 요구하지도 않았던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되어 살해당한다. 물론, 〈변씨열행〉의 평민녀는 남주인공 왕생에 대한 단순한 배신으로 그치지 않고 악귀가 되어 왕생을 잔혹하게 살인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변심자로서 징치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상층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하층여성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던 왕생이 비현실적 술법에 의해 기왕의 죽음에서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악귀가 된 평민녀의 왕생 살인은 〈변씨열행〉에서 단순히 싸이코패스적 행위로 형상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왕생은 상층남성으로서 유교적 신분관념상 하층여성에 지킬 의무가 없었던 신의를 지킨 예외성을 인정받아 부활이라는 특별한 비현실적 보상을 받은 것이고, 평민녀는 비록 의무는 아니지만 만약 준수한다면 유교적 지배질서 유지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신의를 지키지 않은 대가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악귀녀의 형상은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관념적·인식적인 것일 수도 있다. 유교적 지배질서가 비공식적으로 하층민에게도 요구하고 있었던 신의를 저버린 여성이 유교적 인식체계로부터 부여받은 관념적·인식적 형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씨열행〉까지 포함하게 되면 『오옥기담』이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신의를 강조하기 위해 특별한 서사적 장치를 구현하는 수준은 애정전기소설사에서 가장 발전적이고 확장적인 데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된다. 『오옥기담』은 서사적 보상을 통해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신의에 대한 지향성을 구현하는 전통을 양적·질적으로 확장한 작품이 되는 동시에 서사적 징치란 역설적 장치를 고안함으로써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신의 지향성 구현을 위한 새로운 서사적 경지를 개척한 작품이 되는 것이다.

4. 『오옥기담』의 20세기 시대사적 의의

『오옥기담』에서 이루어진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전변의 국면이 지니는 20세기 초엽의 시대사적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갑오경장 이후의 신분타파에 의한 문인적 향유층 파괴 현실의 우회적 반영이다. 두 번째는 한일합방 직전의 전망부재 현실과 개선희망 이상의 양가적인 간접투사이다. 세 번째는 20세기 초엽의 동도서기(東道西器)적 현실인식에 대한 무의식적인 의고적 차원의 투영이다.

1) 갑오경장 이후의 신분타파에 의한 문인적 향유층 파괴 현실의 우회적 반영

『오옥기담』이 편집된 1906년은 대한제국 광무(光武) 10년으로, 1984년의 갑오경장에 의해 조선의 전통적인 유교적 신분질서가 타파된 지 22년이나 지난 시점이다. 갑오경장으로 기왕에 타파된 신분제도는 불완전하게 남은 왕실귀족과 함께 친일파 관료·자본가·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배계층과 절대 다수의 피지배계 층으로 구성된 계층질서로 전이되었지만, 선천적으로 타고 난 계급에 의해 후천적 신분이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전근대적 신분제도가 종식되고 후천적 노력에 의해 선천적으로 타고 난 환경세계를 개선내지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된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옥기담』 소재 다섯 편의 텍스트 전편에서 전대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적 클리쉐인 지기지음적 만남·애정의 서사적 매개체로서의 한시·가악창화가

삭제되고 있는 이유도 이처럼 갑오경장 이후로 전통적인 신분제도가 해체되었던 시대현실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기실, 한시・가악창화를 애정전기소설 주인공들의 지기지음적 만남・애정을 서사적으로 관습으로 성립시켰던 주체는 애정전기소설 양식의 창안자이자 확립자인 문인지식층이다. 반면, 『오옥기담』이 편집된 1906년은 이처럼 한자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문인지식층의 해체가 시작되고 일본문화를 매개로 유입된 서구의 근대문화 향유층이 국문전용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전문지식층을 구성했던 시기[10]이다. 비록 서구 근대문화를 추종하거나 직접적인 세례를 입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서구문화에 대한 간접 경험과 학습에 의해 관련 지식이 국문전용을 통해 일반화・대중화 되어가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문인지식 교육을 받은 향유층이라 할지라도 1906년 이전 세대와 달리 서구 근대문화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식을 국문전용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향유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1906년 이후의 문인지식층은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미의식을 보유한 향유집단이 된다.

1906년 이후의 애정전기소설 향유층에게 있어서 이미 시대적 소명을 다했을 뿐 아니라 대중적 교육 커리큘럼에서도 사라져 버린 한자문화와 관련된 한시・가악창화를 매개로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만남・애정의 서사적 계기를 형상화 하는 것은 환경세계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옥기담』에서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만남・애정의 서사적 계기로서의 한시・가악이 당대적 대중가요로 대체되지 않았던 것은 일반 민중을 주된 향유층으로 하던 판소리계 소설이나 영웅소설과 달리 애정전기소설은 문인지식층의 고아(高雅)한 취향에 부응하는 양식이라는

10) 1906년을 전후로 한 새로운 지식문화는 국문전용을 중심으로 한 지식의 대중화와 한문탈피를 통한 독자적 정신의 구축 운동 등과 관련되어 있었다. 한문 배제의 국문전용을 통한 지식의 대중화와 국문지식층의 육성은 미국유학파인 서재필의 『독립신문』(1896), 민족운동가인 이종일의 『제국신문』(1898), 영국 언론인 출신의 항일운동가인 베델의 『대한메일신보』(1904) 등의 신문 창간・발행을 통해 매스미디어의 측면에서 먼저 촉발되었다. 원래, 1896년의 국문동식회처럼 『독립신문』의 사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국문연구 조직이 지석영의 국문연구회(1907), 주시경의 국문연구소(1907), 주시경의 국문연구회(1908) 등의 학술조직으로 발전하면서 국문전용을 통한 대중적인 국문지식문화가 확대되어 나갔다.

관습적 인식이 여전히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옥기담』 소재 〈금잠가연〉에서 지기지음적 만남·애정의 서사적 매개체로서의 한시·가악을 즉물적으로 변환한 최대치가 전통적인 공예물인 금비녀였다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우아미(優雅美)의 관습적 유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일합방 직전의 전망부재 현실과 개선희망 이상의 양가적인 간접투사

『오옥기담』이 편집된 1906년은 1910년에 이루어졌던 한일합방으로부터 4년 전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는 대한제국이 한일합방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탄 시기[11]로, 이미 가속화 되어 버린 급행열차의 페달을 밟을 방법을 찾지 못한 절망감이 전국민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던 무렵이었다. 1984년의 갑오경장 시기에는 현실개선의 희망이라도 존재했지만, 1906년에 오면 현실적 전망부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06년은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한국에 부임한 시기로 통감부에 대한 한국 지배가 사실상 시작된 시기였다. 일제의 한국병탄이 피부로 느껴지는 절망감의 한켠에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존속해있던 대한제국에의 희망이 공존하고 있던 시기가 바로 1906년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12]이다.

이러한 사실은 『오옥기담』 소재 〈청루의녀〉와 마찬가지로 명대(明代) 〈두십낭노침백보상(杜十娘怒沈百寶箱)〉을 개작한 〈기연중절(奇緣中絶)〉과 〈청루의녀〉와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연중절〉은 18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월까지 『한성신보(漢城新報)』에 연재되었던 작품이다. 〈기연중절〉은 〈청루의녀〉처럼 〈두십낭노침백보상〉을 개작했지만 그 방식과 의도가 전혀 다르다. 〈기연중절〉에는 기왕에 변심했던 이생이 청루녀의 자살 이후 중로객사(中

11) 1906년이 일본의 한국병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기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최규순, 「1905-1906년 서구식 大禮服제도 개정에 나타난 일제의 한국병탄 준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9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을 참조 가능.

12) 이러한 1906년의 시대적 특수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박미선, 「1906년 대한제국 황태자 혼례에 나타난 감성정치」, 『감성연구』 제16집, 호남학연구원, 2018.

路客死) 하지만, 〈청루의녀〉에서 이생은 죽기는커녕 고향으로 환향한다. 〈기연중절〉에서 이루어진 이생의 객사는 비록 문면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청루녀의 자결을 초래한 자신의 기왕의 변심에 대한 자기반성에 의해 초래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청루녀를 배신하여 신의를 지키지 않은 이생에 대한 〈기연중절〉의 서사적 징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루의녀〉 보다 10년 앞서 나왔던 〈기연중절〉에는 남성의 변심에 대해서도 서사적 징치를 할 정도로 직접적인 현실개선 의지가 형상화 되어있었던 것이다.

반면, 이렇게 〈기연중절〉에 형상화 되어 있었던 직접적인 현실개선 의지가 10년 후인 〈청루의녀〉에 와서 사라진 배경에는 10년 동안 실현되지 못했던 현실적 전망에 대한 자기부정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연중절〉이 『한성신보』에 연재된 1896년은 갑오경장 직후로 직접적인 현실개선에 대한 희망이 유지되고 있던 시기이지만, 〈청루의녀〉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1906년은 이미 직접적인 현실개선에 대한 전망이 부재한 시기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청루의녀〉와 합철된 『오옥기담』 소재 〈변씨열행〉에서 여성변심에 대한 서사적 징치는 준절히 이루어졌어도 〈청루의녀〉에서 기왕에 번안 전작인 〈기연중절〉에도 있었던 남성변심에 대한 서사적 징치가 삭제된 사실과도 관련된다. 『오옥기담』은 여성의 정절에 대한 정려와 징벌을 내세워서 남성의 의식 및 행동 변화라는 현실개선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작품인 것이다.

여기서 『오옥기담』의 시공간이 일관되게 중국을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는지의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애정전기소설사가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던 한국적 시공간이 20세기 초엽의 『오옥기담』에서 일괄 소거되고 중국적 시공간으로 대체되어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오옥기담』은 중국적 시공간이라는 비일상적·비현실적 배경을 통해 직접적인 개선에 대한 전망이 부재한 현실을 간접적으로 형상화 하되, 동시에 그러한 현실개선에 대한 희망을 우의적(寓意的)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오옥기담』 소재 텍스트에서 비현실성이 전대의 애정전기소설 작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직접적인 현실개선에 대한 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현실개선에 대한 희망을 비현실성 확대를 통해 형상화

하고자 한 결과다. 즉, 직접적인 현실개선에 대한 전망부재와 간접적인 현실개선에 대한 이상적 희망이 공존하는 현실인식적 길항작용의 서사적 결과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20세기 초엽의 동도서기적 현실인식에 대한 무의식적인 의고적 투영

『오옥기담』이 편집된 1906년은 대한제국의 동도서기(東道西器)이라는 세계관이 유지되던 시기다. 동도서기란 서구의 기술을 받아들여 주체적인 발전을 추구하되 동도(東道)의 정통을 조선이 아닌 중국에 놓고 있던 20세기 초엽의 시대 의식적 흐름을 의미[13]한다. 이때, 1900년대 애정전기소설의 중국 배경 고소설 계열에서 확인되는 시공간·장르적 의고성은 전통적인 중화정통주의의 기저 하에서 외부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여 주체적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 1900년대의 동도서기적 지향성에 무의식적으로 대응된다. 동도의 정통을 조선이 아닌 중국에 놓는 동도서기적 시대의식에 무의식적으로 조응하다 보니 1900년대 중국 배경 고소설 계열의 애정전기소설에서는 당대의 조선이 아닌 과거의 중국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때, 과거의 중국은 중화주의 질서가 굳건히 유지되는 중국이어야 하는 바, 『오옥기담』이 신해혁명기 이전의 청나라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고소설의 장르로 형상화 하고 있는 의고성의 미의식적 지향은 이러한 중화정통주의 하의 동도서기적 시대의식과의 무의식적 조응성과 관련하여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오옥기담』 소재 다섯 편의 텍스트에서 18·9세기의 애정전기소설사가 전폭적으로 확장시켰던 변심테마가 세 편만 확인되는 것도 이처럼 20세기 초엽의 동도 중심적 현실개선에 대한 이상이 무의식적으로 구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오옥기담』에는 변심테마의 텍스트가 세 편인 대신, 18·9세기 애정전기소설사에서는 사라졌던 애정불면 테마의 텍스트가 두 편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화전통주의적 동도인 유교적 정절관념의 확장을 통해 현실개선에 대한 이상을 비일상적으로 피력하고자 하는 의식의 무의식적인 발로가 된다.

13) 노대환, 「19세기 東道西器論 形成過程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8.

기왕에 세 편으로 산정되었던『오옥기담』소재의 변심테마 텍스트 중에서 절반이 넘는 두 편의 변심테마의 형상화 방식이 18·9세기 애정전기소설사의 그것과 미시적으로 다른 이유 역시 중화전통주의적 동도인 유교주의를 통해 현실개선이라는 이상적 희구를 표출하는 동도서기론과 무의식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금잠가연〉처럼 기왕에 변심했던 남주인공에 대해 여주인공이 신의를 끝까지 지킨 결과 애정의 해피엔딩을 맞는 17세기의 〈상사동기〉 방식이 소환되고, 〈변씨열행〉처럼 여성변심이 새로운 서사적 징치의 대상이 된 배경에는 구본의 동도 중심적으로 현실개선을 이루어내려는 20세기 초엽의 동도서기론적 세계관이 무의식적 차원에서 의고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오옥기담』의 무의식적인 동도 중심적 현실개선 지향성은 동시대 작품들에서 확인되는 서기(西器) 중심적 현실개선 지향성과 명백히 차별화 되는 것이다. 예컨대,『오옥기담』과 동시대인 1906년의『대한일보(大韓日報)』 연재소설이었던 〈일념홍(一念紅)〉에서는 서구유학이라는 서구적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작품이다. 〈일념홍〉에서 남주인공 이정에 대한 여주인공 일념홍의 애정은 전통적인 정절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서구유학을 통해 학습한 남녀평등의 서구적 이상을 조선사회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남주인공에 대한 여주인공의 전통적인 정절만으로 애정은 실현될 수 없으며, 남녀평등의 서구적 문화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현실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때만이 남녀주인공의 사랑이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일념홍〉의 서사적 논리다. 즉, 서본동참(西本東參)의 서기 중심적 현실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실현의지가 된다.

5. 나오는 말

본 연구는 선행연구사에서 18·9세기까지 지속된 역사적 양식으로 논의되어온 애정전기소설이 20세기 초엽의 시대사적 변화에 조응하는 가운데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서사적 전변과 시대의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오옥기

담』 소재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가 단순한 복고적 주제와 구투의 문체로 된 신소설 혹은 다섯 편의 계몽적 단편 국문고소설을 묶은 편집본이 아니라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적 전통 속에서 개화기라는 20세기 초엽의 국가적 이슈에 서사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 애정전기소설사의 주체적인 전변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애정전기소설사가 18·9세기 이후에도 시대적 변화에 대한 허구적인 응전이라는 문학적 소명에 부응하고자 하는 흐름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에서 실현되었다. 첫 번째는『오옥기담』소재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의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특징 분석이다. 〈금잠가연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의『오옥기담』소재 다섯 편이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적 보편성에 부합하는 텍스트라는 사실을 전기적 인물의 성격과 애정갈등의 서사적 측면에서 주로 규명한 작업이 된다.

두 번째는『오옥기담』소재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애정전기소설적 미학의 특수성이다.『오옥기담』소재 다섯 편 텍스트가 애정전기소설 양식에 부합하는 작품이면서도 이전 시기 애정전기소설 텍스트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성을 구현한 독창적인 작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세 번째는『오옥기담』소재 다섯 편 텍스트의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특수성이 지니는 애정전기소설 통시사적인 의미이다. 즉,『오옥기담』소재 다섯 편 텍스트의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특수성이 지니는 차별적인 의미를 애정전기소설의 통시사 속에서 입증해 보고자 했다.『오옥기담』에서 추출한 애정전기소설적 미학의 특수성은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모든 시대의 애정전기소설에서 일관되는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나말여초부터 18·9세기까지 존재하는 애정전기소설 작품들 중에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 타입의 애정전기소설적 특수미학을 공유하는 텍스트들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적 미학의 보편성을 전재로 한 공유다. 나말여초부터 18·9세기까지 매시기 명멸했던 애정전기소설사의 단계들에는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과 공유되지 않는 애정전기소설 미학의 하위 지점들이 확인되는 바, 이들 지점들은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를 애정전기소설사의 이전 단계들과 차별화 시키는 요소들이 된다. 거꾸로 말하자면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에서 추출한 애정전기소설의 특수미학은『오옥기담』소재 다섯 편의 텍스트들을 이전 시기 애정전기소설사의 각 단계들과 차별화 시키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오옥기담』소재 다섯 편의 텍스트들이 차별적으로 형상화 하고자 한 애정전기소설적 미학의 특수성이 애정전기소설사의 차별적인 20세기적 전변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시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네 번째는『오옥기담』소재 다섯 편 텍스트에서 도출해낸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미학의 전변 국면이 지니는 시대사적 의의이다.『오옥기담』소재 다섯 편의 텍스트들에서 도출한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전변 국면이 20세기 초엽의 변화된 시대의식 및 환경세계와의 조응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즉,『오옥기담』이 〈금잠가연〉·〈변씨열행〉·〈선분기담〉·〈취란방기〉·〈청루의녀〉라는 다섯 편의 텍스트를 특별히 선택하여 편집한 데에는 편집자의 특별한 편집의도가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오옥기담』편집자의 편집의도를 20세기 초엽의 시대의식 및 시대배경 속에서 규명해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권도경, 「〈정생전〉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9, 81-109면.

_____, 「16세기 『기재기이』의 전기소설사적 의의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a, 33-58면.

_____, 「〈동선기〉 연구」, 『이화어문학논집』 제18집, 이화어문학회, 2000b, 49-72면.

_____, 「17세기 애정류 전기소설에 나타난 정절 관념의 강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a, 269-299면.

_____, 「〈정생전〉의 서사구조적 특징과 18세기 전기소설적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제18호, 민족문학사학회, 2001b, 182-219면.

_____, 「조선후기 애정전기소설의 변심 주지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2a.

_____, 「〈안생전〉의 창작 경위와 이본의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b, 191-223면.

_____, 「〈포의교집〉의 애정갈등과 비극적 결말의 현실적 의미」, 『국어국문학』 제132호, 국어국문학회, 2002c, 153-186면.

_____, 「〈빙허자방화록〉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36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d, 215-250면.

_____, 「김기의 문학세계와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2e, 113-146면.

_____, 「〈백운선완춘결연록〉의 작품세계와 변심테마의 소설사적 맥락」, 『고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a, 145-181면.

_____, 「〈憑虛子訪花錄〉의 변심 테마와 전기소설사적 위상」, 『고소설연구』 제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b, 131-163면.

_____, 「〈홍랑전〉의 구성적 특징과 소설사적 의의」, 『민족문화논총』 제30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5, 395-428면.

_____, 「드라마 〈가을동화〉의 애정전기서사원형 재생산과 동아시아 한류 드라마적 탄생 배경」, 『고전문학연구』 제43집, 한국고전문학회, 2013, 327-369면.

_____, 『조선후기 전기소설의 전변과 새로운 시각』, 보고사, 2004.

_____, 「애정변심계 〈춘향전〉 근원설화의 변동단계와 〈춘향전〉 프로토타입으로의 이행과정」, 『국학연구』 제35집, 한국국학진흥원, 2018, 451-494면.

김기동, 「오옥기담(五玉奇談)」,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21권, 아세아문화사, 1983.

소재영, 「미발표소설삼제(未發表小說三題)」, 『국어국문학』 제55-57호, 국어국문학회, 1972, 323-339면.

_____, 「오옥기담(五玉奇談)」, 『고소설통론』, 이우출판사, 1980.

이재춘, 「청루의녀전 연구」, 『어문학』 제50호, 한국어문학회, 1989, 249-261면.

한예민, 「〈奇緣中絶〉과 〈青樓義女傳〉의 번안 양상 연구—中國小說 「杜十娘怒沈百寶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29집, 돈암어문학회, 2016, 181~199면.

허순우, 「애국계몽기 국문단편 고전소설집 『오옥기담(五玉奇談)』의 특징과 의의」, 『한국민족문화』 제58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171-199면.

【Abstract】

Love Romance Mode's Regulation of *O-ok-ki-dam* and Love Romance's Direction in Early 20th Century

Kwon, Do-Kyung*

This paper intended to investigate that the love romance was continued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in the accordance with the epochal change of the early 20th century. Until now, the early 20th century's love romance hasn't be studied. The history of research on the love romance was ended in the 18・19th, til recently. This study realized the aim of this paper through the narrative change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tim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largely classified to two parts. The first part is that *O-ok-ki-dam* is not the new-style novel of the retro theme and the old-fashioned style or the edited version of the five enlightening-korean short classical novel, but the results of the love romance history's subjective change to intend to narratively agree with the early 20th century's epochal issue, in the stylistic tradition of the love romance. The second part is that the love romance history still carried the flow to agree with the literary calling of fictional concordance to the changes of the times since the 18・19th.

Keywords: Early 20th century love romane, *O-ok-ki-dam*, Keumjamgayeon, Chwiranbanggi, Byunseeyeolhaeng, Sunbungidam, Chungrueuinye.

접수일: 2019.12.30. ‖ 심사일: 2020.01.13. ‖ 게재확정일: 2020.02.17.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Woosuk Univ.